"프로기사의 꿈 꼭 이룰 거예요"

■광주 문성중 바둑부 유은총·권재구·강지수군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든 게 있다. 프로 바둑 기사가 되는 길이다. 한국기원이 1년에 선발하는 프로기사는 단 9명뿐이기 때문이다.

15일 프로 기사의 꿈을 꾸고 있는 문성중 바둑부 학생들이 복기를 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총, 강지수, 권재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규철 9단 문하…토론·복기에 열중
'바늘 구멍' 프로입단 위해 맹훈련중
얼굴은 앳되지만 실력만큼은 수준급

1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국기원 광주지원 대국실에는 앳된 아이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오규철 9단이 오전에 건네준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들여다 보며 문성중학교 바둑부 부원들이 복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바둑천재들의 명 대국을 제 1수부터 끝수까지 다시 두면서 서로 비평하는 공부다. 프로 기사들의 행마를 되풀이하면서 바둑의 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어 이들은 하루 2~3시간은 복기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팀을 꾸린 문성중 바둑부원은 현재 유은총(3년·아마 2단)·권재구(2년·아마 5단)·강지수(1년·아마 4단) 세 명뿐. 광주·전남지역에 하나뿐인 학교 바둑부치고는 구성이 초라한 것은 아직까지 고교·대학 진학 과정에 바둑 특기생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력만큼은 화려하다. 권재구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굵직굵직하게 뻗어나가는 행마의 기운이 좋고, 초반부터 자신이 유리하게 판을 짜는 모양새도 탄탄하다. 특히 싸움을 걸고, 매조지하는 힘이 있다.

만만하게 보고 호기롭게 바둑 돌을 들었던 어른들도 울고 갔다는 광주 꼬마 바둑왕 강지수도 기대주다. 강군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회교육감배중·고등학생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중·고생 7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였지만 맞수가 없었을 정도로 독무대였다. 올해로 6년째 바둑을 공부하고 있는 강군은 초등학교 때에도 광주서구청장배, KBC배 등을 휩쓸었을 정도로 같은 또래에서는 경쟁자가 없었다.

3학년이 된 뒤 학업 때문에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던 유은총도 겨울방학을 맞아 맹훈련 중이다.

오규철 9단은 "체전 정식 종목이 아니다 보니 특기생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역 내 선수층이 얇아 유망주들의 연습 상대가 없다"면서 "수준급 실력인데도 지방은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전혀 없고, 프로의 문이 좁은 것 등은 한국 바둑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국내 프로 기사는 매년 9명을 선발하는데 한국기원 연구생들 중에서만 우선 2명을 뽑는다. 누구나 참가 가능한 봄, 가을 입단대회에서 각 2명씩 모두 4명을 선발한다. 또 각 지방의 연구생들만 참가하는 지역연구생 대회에서 1명, 그리고 여성을 2명 선발할 뿐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많은 유망주가 하루 10시간씩 연습하고도 20세 무렵에 프로의 길을 포기하고 아마추어로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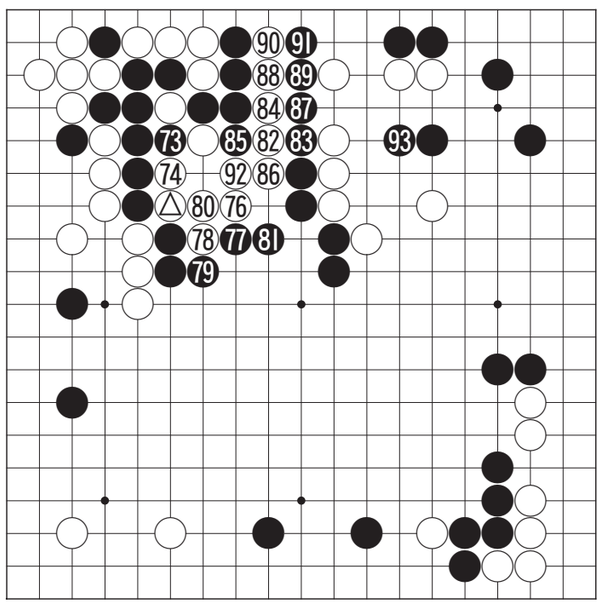
하지만 이들은 "바둑부 선배 2명이 입단했는데 우리도 노력하면 길은 열릴 것이다"면서 "한 5년 정도 연마해 전국대회를 석권하고, 프로 기사로 뽑혀 마음껏 꿈을 펼치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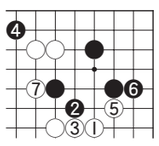
광주 기우회 대항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임기응변

6보(78~93)

白 김희관 5단 (무석회) 黑 임상빈 6단 (광유회)





〈참고도〉

백 △로 끊어간 것이 김희관 5단 노리던 수로 날카로운 수였다. 그러나 아무리 날카로운 자객의 칼날도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 수는 아껴뒀으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호수였지만 애석하게도 시기가 너무 빨랐다.

김희관 5단 백 82로 찌르는 날카로움에 도취되어 뒷면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해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백 92까지 왼쪽 흑 대마를 포획한 것은 정확한 수 읽기로 부분적으로는 대성공이다.

그러나 임상빈 6단 오히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흑 91까지 좌우를 완전하게 분리한 다음 흑 93으로 급소를 찔러 오른쪽 백 대마를 공격해오자 순식간에 환희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만다.

임상빈 6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련한 임기응변을 보여준 것이다.

백 △로는 먼저 백 1로 우변으로 짓쳐들어가 백 대마를 지켜둬야 했다. 흑은 4로 두는 정도인데 7까지 살아두면 실전과 같은 수도 남아있는 데다가 집도 많아서 백이 유망한 형국이었다.

너무 빨리 수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있는 김희관 5단이다. 과연 백 대마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세계대회 출전 대표 절반
랭킹 상위자에 배분키로

국가대표 선발 방식 확정

춘란배, 후지쯔배, 응씨배 등 올해 열리는 세계 대회에 출전하게 될 국가대표 선발 방식이 결정됐다.

한국기원은 15일 "2008년부터 새로운 랭킹제 도입과 함께 국가별로 주어지는 국제대회 시드의 절반을 랭킹 상위자에 주고 랭킹 상위자가 출전권을 사양할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준다. 또 남은 절반의 시드는 4배수의 선수를 랭킹순으로 뽑아 선발전을 벌여 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자랭킹을 별도로 발표해 여자대회에는 여자랭킹을 적용해 선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앞서 원양부동산배 대표선발에 이 제도를 적용, 루이나이웨이·박지은 9단, 조혜연 7단에 자동 출전권을 부여하고 선발전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원은 오는 18~19일에는 제6회 응씨배 국내 선발전(1명 선발)을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슬럼프 탈출 이창호…거침없는 18연승

이창호 9단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갈까? 올해 가장 큰 바둑계 뉴스는 단연 이창호다. 18연승을 달리며 부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호는 지난 12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6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본선 개막전에서 최원용 5단을 맞아 250수 만에 1집반승을 거뒀다.

초반부터 승기를 쥐고 내놓지 않은 이창호의 완벽한 승리였다. 백을 잡은 이창호는 우상쪽 전투에서 흑 모양을 무너뜨리며 실리로 방향을 잡았다. 최원용 5단도 두텁게 몰아붙였지만 거대한 성을 부수듯 거세게 몰아치는 이창호의 공격은 역시 명품이었다.

이날 승리로 이창호는 18연승을 기록했다. 올 들어 단 한 번도 지지않았다. 올해에는 제3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에서 목진석 9단을 꺾고 '9단 보다 잘 두는 9단'에게 주어지는 십단의 영예도 안았다.

이창호는 지난 2일 서울시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 2국에서 목진석에게 흑 163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2승으로 우승컵을 차지한 이창호는 국제기전인 중환배와 왕위전, KBS 바둑왕전에 이어 4관왕에 올랐다. 십단 타이틀은 지난 2006년 1회 대회 이후 두 번째.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구리 9단, 4개월만에 中 랭킹 1위 복귀

구리 9단이 중국 랭킹 1위에 복귀했다. 중국기원은 15일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성적을 집계한 랭킹에서 구리가 2천697점을 획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구리는 지난해 부친의 사망으로 슬럼프에 빠진 뒤 1위 자리를 콩지에 7단에 빼앗겼으나 4개월 만에 다시 랭킹 1위로 올랐다.

5위였던 창하오 9단도 중국 갑조리그에서 20승2패의 성적을 거둔 것에 힘입어 2천69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콩지에는 3위(2672점)로 밀려났고, 지난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하며 첫 1위 등극을 꿈꾸었던 후야오위 8단 역시 4위(2천658점)로 밀려났다. 이밖에 씨에허 7단이 지난번 7위에서 5위(2657점)를 뛰어올랐다.